



파킹넷

권리자	한형우	연락처	010-4842-0705	이메일	2480104@naver.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6, 603호(감만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0 공학관)				
권리번호	10-2256839				
발명의 명칭	개별 체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의자				
제품명칭	착석 시 바른 자세 인지행동을 하게 하는 기능성 의자				
판매가격	보급형 100,000원 / 고급형 150,000원				

발명의 계기에 대하여 소개해주신다면?

대부분 사람은 의자의 등받이는 뒤로 기울어져야 의자에 앉았을 때 바른 자세가 되는 것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바른 자세가 되면 귀와 어깨와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어 상체가 뒤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직각에 가깝게 꼿꼿하게 세워집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는 반듯이 앉아 있을 때보다도 1.6배의 하중을 받게 되어 척추에 무리 가는 것으로 SCI 학술지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개발 의자는 착석 시 바른 자세를 유도하며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수상품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의자에 앉았을 때 바른 자세가 되려면 가슴을 곧게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되면 귀와 어깨와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어 상체가 구부정해지거나 뒤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직각에 가깝게 꼿꼿하게 세워집니다. 개발제품은 꼿꼿하게 세워진 상체의 등 후만 부위와 허리 전만 부위에 받침대로 받쳐주어 꼿꼿하게 세워진 바른 자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때 등 받침대와 허리 받침대와 허벅지 받침대의 위치 및 각도가 사용자의 체형에 최적화되도록 맞춤조절 기능을 구비 하였습니다.

수상품의 특징점을 꼽는다면?

개발제품은 사용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을 곧게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고 오금 간격이 좌판에서 4cm 내외가 되게 하여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의자에 앉았을 때 1분에 한 번 정도 움직이는 데 사용자가 바른 자세로 의자를 얼마간 사용을 하면 상체와 등과 허리 받침대를 인지하여 자세가 흐트러졌다가도 스스로 바른 자세로 돌아가는 인지행동을 하게 되어 바른 자세가 항상 유지되도록 합니다.

추후 계획과 포부는?

개발 의자는 지금까지 의자의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등받이와 좌판이 수직으로 된 의자 프레임을 개발하여 2021년 3월 17일 특허 출원을 하고 2개월 후인 5월 21일 특허 등록을 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출원 및 등록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허대전을 계기로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는 특히 목과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성 의자는 이제 매우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성 의자로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